

근로 어머니와

그 가정의 문제점

1. 개 황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장>
김 영 자

현대여성들은 단순한 소비자나, 내부양자로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결혼하여 가사에 종사하는 주부들로 직업을 구하는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女性의 地位향상과 더불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집약되어 사회적 승인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주부들이 직업을 갖게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대체로 남편 1인만의 수입으로서는 소비 혁명에 가져다준 중요한 현대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경제적인 점과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기능력을 가정외에서도 심분발휘함으로써 人生을 충실히 살아보겠다는 여성들의 의식구조의 변화와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도 직장에 많은 여성들의 진출과 직장내에서의 평등화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주부들은 소비혁명과 산아제한등으로 과거의 주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손쉬운 가사나 자녀교육을 담당하는데 불과하며 어떤의미에서는 반실업자 상태에 놓여있다. 마치고남성실업자가 직업을 구하는 것과 같이 반실업자, 화한 주부들도 직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나라 근로여성들의 취업사황을 보면 1970년 현재 여자 14세 이상 인구 9,224,000명중 경제활동인구는 3,620,064名으로 여자경제활동율은 38.5%(대만 37.94%)로 예년에 비하여 3.0%가 증가했으며 여자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전출업 평균으로 보면 23.5세이다. 또한 출업및 직업취업구성을 보면 전문직, 관리직, 83千(2.3%), 사무직 77千(2.2%), 교통체신 2千(0.7%) 기능공 및 단순 노동자 418千(11.9%) 서비스업 361千(10%) 판매업 503千(14.3%) 농촌, 광업, 어업 2056千(58.4%)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 결혼상태별로 보면 기혼자가 많은 직종은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92.1%)이고 농촌, 축산 수산업종사자가(58.9%) 그다음이고 전문직, 기술직(53.4%) 판매종사자(20.9%) 서비스직 종사자(17.1%)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기혼자 가운데 자녀가 없는 여성이 전체의 13.1%나 되며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비교적 많아 27.6%이고 2명이 24.3% 3명이 24.0% 4명 이상이 11%나 된다. (대만은 39.08%) 교육정도를 보면 1971년 현재 여자출업자 214,454名중 중학교 졸업자 64% 고등학교졸업자 23% 전문학교, 대학졸업자 13%이고 이中 취업율은 전국 여자출업자

□ 보건간호 지도자 세미나

의 14.5%이다. 이 가운데 전문학교 대학교 졸업자가 6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32.3%고 중학교 졸업자가 4.7%로 가장 낮다. 여성들의 취업하는 동기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10名中 9名이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가족생계를 위한것이 35.6% 자립하기 위해서가 29.5% 사회경험을 얻기 위해서가 27.1%이다.

1972년도 월평균 임금은 11,784원이며 졸업별로 보면 전기까스나 수도졸업에 종사하는 여자가 평균 32,195원이고 81.4%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10,455원으로 가장 낮다. 남녀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간의 임금의 차이는 남자에 비하여 48% 일본 47% 영국 60% 서독 68.8% 미국 59.6% 불란서 83.1%이다.

1971년 월평균 여자 1인의 근로시간은 299시간이고 月평균근로 일수는 25.8 일이다. 보건분야에서는 취업여성의 질병율은 4.9%이며 직장의 복지시설을 보면 오락실 및 휴게실을 갖춘곳이 54.5%이고 식당이 13.4% 들다없는곳이 32.1%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여성의 노조활동을 보면 노조가입여성은 전체 근로여성 3,620,064 명중 3.3% 밖에 되지 않는다.

2. 여성노동의 문제점

직업분야의 변화과정에서 여성의 고용기회가 전문분야에서 확대되긴 하였으나 대부분이 불안속 단층 노동분야에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 고용이며 단기 순환적이다. 또한 여자와 남자의 임금조건등 대우상의 격차가 크며 같은 상황속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은 문제의식이 희박하며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적

으며 조직적 운동으로 타개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더욱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측에서는, 여자는 가정이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인한 휴가가 많으니까, 숙직을 할 수 없으니까 등등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시키지않고 사무적인 잔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독신으로 실력이나 의욕이 남성에 비해 손색이 없어도 여자기 때문이라는 성적 차별로 주체적인 일을 주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런 이유등으로 남자노동력을 基幹的인 것으로 우선 생각하며 여성노동력은 보조적 저임금 노동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미혼 젊은 여성들의 노동력은 저임금의 消耗品으로서 환영하나 상대적으로 부인들의 일할 기회가 적으며 직장 생활에 상당히 혼란된 중년부인 노동자도 보조적 單純勞動者로 취급되어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내의 교육훈련, 승진, 승급, 등에도 남성과의 경쟁이라는 의미에서 여성에게는 그 기회가 극히 드물다. 특수한 방을 제외하고 관청이나 기업에서 여성이 총책을 맡았다하면 특종 Top news가 되는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 육아휴가의 보장 후생시설, 육아보육시설등의 부족으로 직업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3. 여성노동문제에 관한 대책

여성노동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확립을 이룩해야 한다. 여성의수가 적은 직종이나 전문직 종사 여성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임금, 기업체내의 후생시설 뿐만 아니라 出産, 육아시기를 극

복합수 있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조직을 확립하고 조직속에서 여성의 직위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조직력이 여성에게 불합리한 조건들을 해결 할수있는 원동력이 된다. 조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육아의 탁아소, 임시탁아소, 어린이놀이터, 學童保護所 및 가사노동의 社會化가 있다. 副業相談所 설치(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工場이나 기업체와 수출업체와 연결) 직업보도(노동청, 保社部에서 설치운영) 직업안정소설치(노동청취업소개소), 근로여성의 센터(生活相談, 法律相談, 건강상담, 육아상담, 탁아오락)등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로서는 공동식사, 세탁등이다.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즉 사회화하는 방향에서의 운동은 조직화에 못지않게 必要한 것이다. 직업의 전문화와 더불어 今後 전문직婦人의 수가 증가할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自身의 問題를 해결하고 출산 육아문제, 장기적인 취업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단기연속의 노동에 고정되어 있는 여성노동자 전체에 새로운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구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집단 근로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극히 바람직하며 기대되는 시기는 없을 것이다.

4. 직업여성의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

대부분의 근로여성들은 경제적자립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게됨에 따라 주어진 권리의 행사 및 자기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적인존에서 자립하게 되면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더욱더 상호간의 이해와 진정한 사랑의

결합이 없이는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는 힘들며 또한 가정의 기능이 점점 외부로 분산됨에 따라 어느시기에 가던 가정이라는 제도가 필요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 모르나 오늘날과 같이 기제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있어서 인간정신적 안식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모든 사람들은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응하여 최근에는 인간관계학이 연구되고 인간심리학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인간은 어느때 보다도 마음편히 사는 가정을 구하며 정신적 안식처인 가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주부들은 가정에서 주부로서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 직장여성으로서 그 맡은 책임이 과중하기 때문에 과거와같이 가정에서만 자기책임을 다하는 주부처럼 가정생활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경향의 가정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1. 子女教育上的 問題

주부가 직업을 갖게되면 노동하는 시간이 많아져 피로하게 되므로 자연 신경질적으로 되어 가족에게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는 반면에 심리적부담을 주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교육적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피로한 어머니의 얼굴로 자녀를 대하게되니 자녀교육면에서 볼 때 고려할 餘地가 많다. 따라서 지나친 간섭이나 방임상태에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3세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어린이들은 3세까지 인격이 형성되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기초가 마련된다는 일

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어린이 양육은 첫단계에서 잘 교육하면 그후의 3세이상에서는 탁아소에 보내서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집단생활을 시키는 것이 교육상 좋다는 것이다.

2. 夫婦間의 問題

개인적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컨대, 남편이 자기맡은바 일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부인의 내조가 필요할 것이며 주부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협력을 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가사는 부인의 전담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바쁜일이라도 助力할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사고방식이라면 곤란하다. 부부간의 가사분담에 있어서 진정한 애정만 있다면 별로 어렵지않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것이다. 결국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는데 있다. 따라서 가사운동의 구별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주택구조의 개선과 가사노동수단의 현대화 및 생활개선, 주부 식생활의 혁신도 아울러 해야한다.

3. 老後問題

老後가 되면 경제적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적문제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등의 문제는 이런면을 암시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는 종래의 대가족제도에 대한 비평도 나오고 있으나 종적, 횡적, 대가족제도에서 횡적가족제도, 즉 부부를 중심으로한 3대가족구성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가족제도의 결점만 들 것이 아니라 장점은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가족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조부모와 같이 생활할 경우에는 가정이라는 사회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노인에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가정이 갖출 인적여건은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보겠다. 또한 어머니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동안 걱정하는 자녀를 보호도 조부모가 돌보게되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年代의 의견이나 생각을 배울 수 있게된다. 젊은이의 의견만으로는 독단하기 쉽고 노인의 생각만으로는 진보가 중단하기 쉽다. 各年代의 사람들이 各層의 의견을 습하여 나가는데는 표면에서는 오란한 '소리가 나더라도 심층부에서는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셋째, 가정의 전통을 계승하게 되어 교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가족은 그 가정의 전통속에서 자라는중 그속에 몰들어 인간미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전통을 전해주는 층이 노인이며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여러가지 경험담을 듣는중에 가정의 전통이나 가풍을 이해하는반면 노인들은 이런 과정속에서 늙은이로서의 고독을 덜고 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도덕교육으로서 중요하다. 끝으로 20세기는 남녀간에 있어서 역할의 구별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 자신이 행복한 생활을 원한다면 전전한 몸과 마음으로 그 행복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희망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성취할때까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요컨대, 그시대 풍조에 자부성있는 자세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